



9월2일까지
6일간 열렸던
북경국제도서
전람회 입구.



도서전 기간
내내 '도서
주문회'를
실시해 이채를
띠었다.



· 서울 교보문고에 마련한
호주 현대문화 도서전시회(왼쪽).
· 서울 남산 독일문화원에서 열리고 있는
(바덴-뷰르템베르크주 도서전)의
브레히트 특별전 코너(오른쪽).

이번 도서전의 특징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첫 3일간은 저작권 상담을 하고자 하는 중국출판사의 담당자들이 해외 출판사 부스에서 장사진을 이뤘고, 나중 3일간은 각 출판사들이 자사의 도서주문표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한편이라도 좋은 책을 고르려는 서점 관계자들에게 각사의 책을 선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올해는 해외 부스가 252개나 참가하여 지난해보다 9%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예림당 두 곳만 참가하여 아쉬움이 남았다. 같은 동양권인 일본은 별

수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회 참가,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생각한 긴 안목으로 잠시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중국 출판계가 예년에 비해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도서전이 개막되자마자 밀려들어오는 인파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관람자를 보면서 중국출판계가 침체기에 있다는 말을 실감하지는 못했다. 중국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와서 이곳 저곳 부스를 기웃거리며 책을 보는 모습 또한 감동적이었다. ◆

독일·호주 출판과의 만남

〈브레히트 특별전〉 등에 국내 독자들 초청

최근 호주와 독일의 책을 소개하는 이색적인 자리가 마련됐다. 두 행사는 대사관이 직접 주관해 각국 출판의 현재를 알 수 있는 자리로 의미가 깊었다. 지난 2일 독일문화원(원장 만프레드 오토·남산 후암동)에서 열린 '바덴-뷰르템베르크주 도서전'은 독일 출판의 저력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독일 남서쪽에 위치한 바덴-뷰르템베르크주는 쉴러와 뢰팅린, 헤르만 헤세 등 세계적인 문호를 배출한 도시로 유명한데, 독일 출판시장 규모의 30%를 점유하는 '출판도시'다. 이번 행사에는 화보·사진집 등 바덴주 소개책자와 인문사회·어린이·백과·의학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60여개 출판사가

600여종의 책을 내놨다. 이 가운데는 김원일의 《바람과 강》 독일판 《Wind und Wasser》(Pendragon Verlag)도 끼어 있었다.

클라우스 뢰러스 주한 독일대사는 "독일 작품이 한국에서 많이 읽혀 두 나라의 정신적 장벽은 없다"며 "도서전을 계기로 양국 출판계가 활발하게 교류하기를 바란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바덴-뷰르템베르크주 출판협회의 요하네스 쉐리 사무총장은 "독일에도 한국문학 등 출판상품이 많이 수입됐다"며 한국과의 출판교류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브레히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서울에서 개최되는 '브레히트 국제 심포지움'의 일환으로 마련된 〈베르톨트 브레히트 특별전〉은 많은 이의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는 브레히트 작품과 관련서, CD로 제작된 오디오북 《Leben des Galilei》 등 모두 100여종의 도서가 전시되었다.

호주의 현대문화를 만날 수 있는 '호주 현대문화과 영화 축제'는 영화를 매개로 한 흥미로운 기획으로 관심을 모았다. 선재아트센터와 호주대사관, 호한재단(이사장 브라이언 스콧)이 공동주최한 이 행사는 9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교보문고(대표 박환인)와 아트선재센터(대표 정희자·종로구 소격동)에서 열렸다.

이 기간 동안 아트선재센터에서는 〈오스카와 루신다〉, 〈내가 쓴 것〉, 〈블리스〉 등 장편영화 4편과 단편 영화를 상영했고, 교보문고는 이보다 앞선 9월 1일부터 해외서적관 앞에서 호주 서적을 전시·판매했다. 9월 5일 오전 11시에는 토니 힐러 주한 호주대사 등과 한국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개막행사가 치러졌다.

소설가이자 시인이자 전임 호주 문예진흥원장을 지낸 로드니 홀(Rodney Hall), 영화제 화제작인 〈내가 쓴 것(What I Have Written)〉의 원작자 존 스콧(John Scott), 한국 출신 작가 돈오 김(Don'o Kim), 영화배우 질리언 존스(Gillian Jones) 등이 참석했다.

전시에는 방한한 작가들의 작품을 비롯해 호주의 문학·예술·정치·과학 분야의 서적 150여종이 선보였는데, 국내에 소개된 《무탄트》(밀로 모건, 정신세계사)와 《인간의 나무》(패트릭 화이트, 을유문화사) 등도 눈에 띄었다. 한국 출신 작가 돈오 김은 "같은 영어권인데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호주문학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며 한국 출판계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 이현주 기자